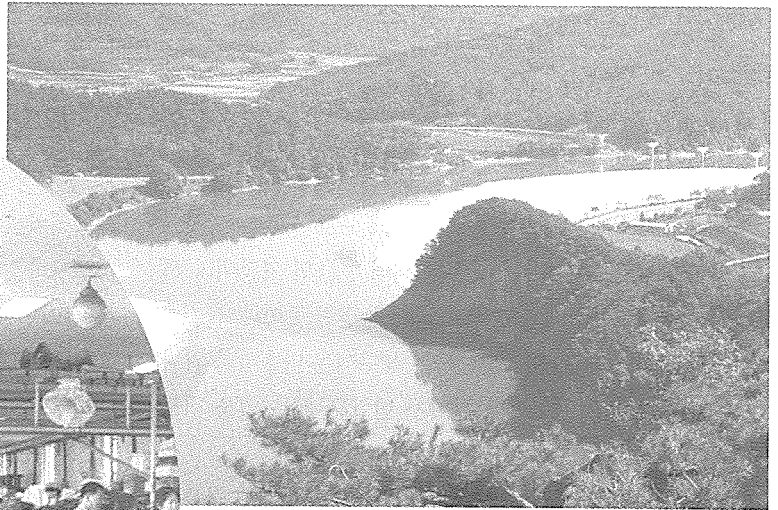




낙엽 떨어지고 단풍 물들어가는 늦가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는 11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국내 최대의 꽃감마을을 찾아서-경북 상주', '가을이 깊어가니 낙엽소리도 외롭다-경남 함양', '새콤한 유자향이 허공에 번지는 날-전남 고흥' 등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국내 최대의 꽃감 마을을 찾아서 경북 상주



◆ 경북 상주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남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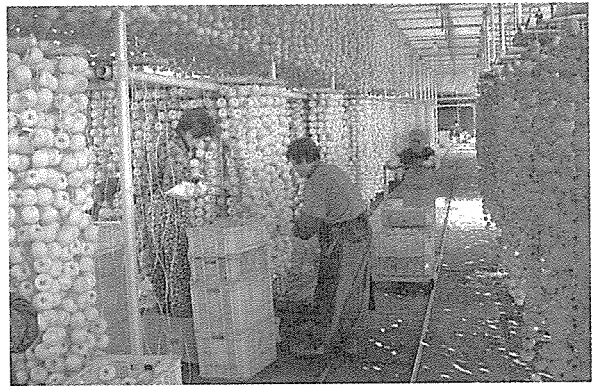
추천계층 : 가족층

경상도의 상은 '상주'를 의미할 정도로 상주는 경상도의 오랜 전통도시이다. 상주는 원래 三白의 고장이라 하여 흰 쌀, 누에고치 그리고 꽃감이 유명한 곳이다.

전국 꽃감의 60%를 생산하는 상주에는 마을마다 감나무가 즐비하고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씩은 있을 정도이다.

감은 종류에 따라 '반시', '고동시', '동시'로 구분된다. 짙은 맛이 없어 홍시 재료로 사용되는 '반시', '고동시'는 경남 진영, 경북 청도, 전북 남원 등지에 많이 난다.

상주 감은 짙은 맛을 내는 '동시'로 '둥글게 생긴 감'이라는 뜻인데 산봉우리처럼 둥글고 소담스럽게 생겼다가 해서 '봉옥' 또는 꽃감을 깎으면 분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분시'라고도 한다. 동시는 탄닌 함량이 많고 물기가 적어 그냥 먹으면 단감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



대신 꽃감 재료로는 최적이라 한다. 꽃감이 되면 짙은 맛은 없어지고 당도가 원래 당도의 두 배까지 증가하여 다른 지방의 꽃감보다 한결 낫다.

25번 국도도 상주시를 가로질러 보은방면으로 10분 정도 가면 남장이라 불리는 전통 꽃감마을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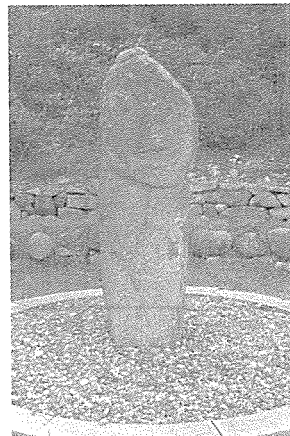
말짱게 익은 감 때문에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감나무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빨갛게 끝부터 물들어가는 감나무 잎 사이사이로 익어가는 감들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진다.

마을 전체가 감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감 건조대가 곳곳에 있는 이곳은 10월부터 한창 감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장마을의 감나무 숲을 지나 노악산 방면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평균 남자 어른키 정도 되는 석장승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이 석장승은 얼굴이 남달라 눈길을 끈다. 머리가 전체 키의 반을 차지하는데 약 15도 각도로 비틀어져 있고 눈은 위로 커다랗게 찢어져 부리부리하다. 코와 입이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웃는 듯, 꾸짖는 듯 알쏭달쏭하다.

이 석장승에서 차로 5분 정도 올라가면 남장사 일주문이 나온다.



가을이 깊어가니 낙엽소리도 외롭다 경남 함양

남장사 일주문은 보기에는 여느 일주문과 다를 바 없는데 양 기둥을 비스듬히 받치고 있는 기둥이 특이하다. 떠받치는 기둥의 머리는 용이고 다리는 까치발이다.

석장승과 남장사의 일주문 기둥에서 조상들의 유머와 해학을 느낄 수 있다. 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용하고 고즈넉하다. 깊은 산세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맑은 바람이 복잡했던 머리와 마음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어느 새 고요함이 깃든다.

남장마을에서 다시 국도 25번으로 상주시방면을 향하다가 외담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경천대가 나온다.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노송숲, 달력 속 그림같은 기암절벽은 하늘이 만들었다 하여 '자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천대를 중심으로 인공폭포, 전망대, 상도 촬영 세트장, MTB 코스, 출렁다리, 자갈 산책길이 큰 원으로 이어지는 이 곳은 한 시간 반 정도면 모두 둘러볼 수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나들이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인데 구불구불 계단 양옆을 돌담으로 잇고 곳곳에 돌탑을 쌓아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망대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물과 추수를 기다리는 노오란 논을 감상하면서 경천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기암괴석과 노송이 자리한 경천대에는 절벽이라는 위치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작지만 맨발공원이 있어 아이들이 뛰놀아도 걱정 없다.

○ 문의전화 :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0-6062



◆ 경남 함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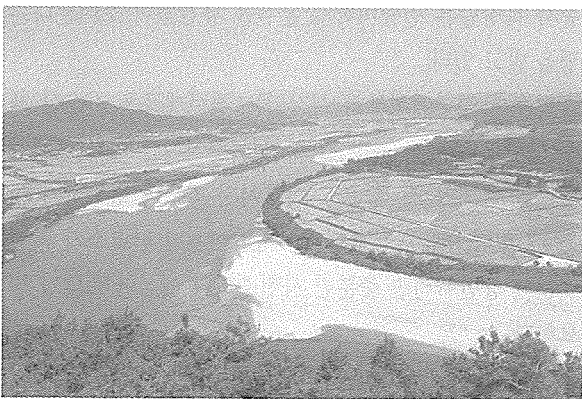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추천계층 : 가족층

경상남도 함양군은 산세가 좋기로 이름난 고장이다. 북쪽으로는 덕유산국립공원, 남쪽으로는 지리산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서쪽에는 백운산, 오봉산, 삼봉산 등이, 거창군과 경계를 이루는 동쪽에는 금원산, 기백산 등이 솟아있다.

산세가 좋으니 당연히 계곡이 발달했고 가을철에 방문하면 형형색색의 단풍미에 흠뻑 젖어둘 수 있다. 지리산능선을 이마에 얹고 사는 마천면에는 칠선계곡, 한신계곡, 백무동계곡, 지리산자연휴양림 등이, 기백산국립공원을 등에 진 안의면에는 용추계곡과 용추폭포, 용추자연휴양림 등이 자리를 잡았다.

함양을 찾은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명소는 함양읍내의 '함양 상림'이다. 함양군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선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인공 숲으로 신라 시대의 문장이었던 고운 최치원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3만6천평 규모의 상림은 예전에 대관림으로 불렸다. 갈참나무, 느릅나무 등 활엽수가 주류를 이루며 수종은 약 1백20여종을 헤아

린다. 한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무성한 그늘을 드리워주고 가을이면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숲이다.

최근 군에서는 상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산책로를 정비했고 맨발건강지압로를 만들었는가 하면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등도 설치하고 인공 연못도 조성, 다양한 연꽃과 수생식물을 심어놓았다.

백련, 홍련, 황련, 분홍련 등이 한여름철부터 10월 중순 무렵까지 번갈아 피고 진다. 상림 중간 도로변에는 역사인물공원도 설치했다.

함양군 안의면소재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3번 국도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거창, 아래로 내려가면 산청 당에 이르고 24번 국도를 타면 함양읍내로 연결된다. 26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육십령 고개를 넘어 전북 장수로 가게 되는데 서하면 남계천(또는 남천강) 주변에 농월정을 비롯,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등의 정자가 줄을 잇는다. 강변 정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풍취가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 함양에는 모두 약 1백50여 개의 정자와 누각이 있고 이 중 화림동계곡을 '정자문화의 1번지'로 손꼽는다. 현지 사람들은 농월정에서부터 거연정에 이르는 경치 좋은 골짜기를 통털어 화림동계곡 또는 안의계곡이라고 부른다.

골짜기 폭이 넓고 물의 흐름이 급하지 않은데다가 기암괴석이 널린 풍치는 좀체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지리산 하봉에서, 증봉, 천왕봉, 제석봉, 벽소령 등을 거쳐 반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감상하기 좋은 곳은 휴천면 오도재 너머에 위치한 지리산 조망공원 휴게소이다.

구절양장의 지안고개를 넘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도재를 다시 넘게 되고 오도재휴게소에 닿으면 육중한 지리산 능선이 시선을 압도한다. 이곳 말고도 지리산 능선을 한눈에 감상하기 좋은 곳은 백전면 백운산 중턱의 상연대라는 고찰이다. 최치원이 어머니의 기도처로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오도재휴게소에서 지리산 능선 감상의 환희를 맛본 다음에는 마천면의 벽송사와 서암을 답사해본다. 칠선계곡 출발점이 되는 추성리 입구. 매표소를 거치기 직전 왼쪽으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벽송사가 아담한 자태를 드러낸다.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 절에 닿으면 우선 한 쌍의 목장승이 반긴다. 잡귀의 출입을 막고 사원의 풍수를 지켜주는 신장상이다. 왼쪽의 장승은 머리 부분이 산불에 타서 없어졌고 오른쪽 장승은 왕눈과 주먹코를 가졌다. 이 벽송사 목장승은 민중미학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벽송사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칠선계곡은 지리산 계곡 등반로 중에서 가장 길고 험한 곳이지만 계곡 전체가 무수한 폭포와 소, 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정하기 이를 데 없다. 빼어난 계곡미가 자랑이지만 난코스라 많기 때문에 등반하려면 충분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문의 전화 : 함양군청 대표전화 (055)960-5555

❖ 경남 함양 ❖

위 치 :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영남면 우천리
추천계층 : 가족층



고흥군 동쪽으
로는 순천만 건
너에 여수반도가
뻗어 있고 서쪽
에는 보성만을
끼고 보성군, 장
흥군, 완도군을
마주보고 있다.

고흥반도와 그 주변에 널린 수많은 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고흥은 서럽게만 느껴지는 한센병 환자의 집단지인 소록도가 우선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 소록도도 눈부시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곳에 산재해 있는 명소가 눈 시린 늦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우선 고흥읍내를 비껴 유자마을(풍양면 한동리)을 찾는다. 11월달이면 노랗게 익어 향내를 풍기는 유자공원이 녹동항 가는 2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국도변에 유자공원이라는 팻말이 크게 붙여 있고 도로변을 사이에 두고 특산물 전시장과 유자밭이 나뉘어져 있다. 우선 유자공원이라는 팻말을 따라 유자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사방팔방 펼쳐지는 유자밭을 만날 수 있다.

유자공원을 비껴 조금만 가면 녹동항과 만난다. 5분 거리에 소록도가 있어서 찾는 이가 많은 향구여서인지 여전히 활기가 느껴진다. 건어물, 싱싱한 어시장 등등. 자연산 회를 모양없이 썰어 주는 초장집에 자리잡으면 어느새 고흥의 하루가 마감된다.

이른 아침, 어부들이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의 생생한 경매를 보며, 소록도 배에 올라도 좋다. '나환자촌'이라는 선입견을 떠나서 소록도는 아름다운 섬이다. 작은 사

새콤한 유자향이 허공에 번지는 날 전남 고흥



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중앙공원 곳곳에 남아 있는 아픈 옛 과거를 떠올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우주기지국 공사가 한창인 나로도 여행도 좋지만 고흥 여행의 백미는 팔영산(608m)을 비롯한 인근 해안 마을을 찾는 일이다.

고흥읍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소백산맥의 맨 끝 부분에 위치한 팔영산(608m)은 8개의 봉우리가 남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솟아있다. 1봉에서 8봉으로 이어지는 암릉 종주 산행의 묘미도 각별한데 가장 최단 거리는 팔영산 휴양림을 통하는 방법이다. 달이 휘영청 떠오르는 날이면 낙조까지 보고 내려와도 좋다.

400고지 정도에 자리 잡은 시설 잘 된 휴양림(영남면 우천리)에서 하룻밤을 유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팔영산 산맥의 하룻밤은 이튿날 몸이 개운해진다는 것을 절감케 할 정도로 청신한 기운을 내뿜는다. 단풍든 활엽수가 우수수 낙엽을 떨구어 내는 날이면 더욱 늦가을 운치를 느낄 수 있다.

○ 문의전화 :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24